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호 [루체 제 25537호] 주제 106 (2017)년 1월 28일 (토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증강한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 도하 공격전술 연습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증강한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
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
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륙군상장 리영
길동지,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사단장 륙군상장
김충술동지, 항공 및 반항공
군사령관 항공군상장 김평
혁동지가 맞이하였다.

증강한 땅크장갑보병련대
겨울철도하공격전술연습은
땅크병, 장갑보병구분대들
이 강행도하 및 추격전투를
벌여 굽히 방어로 넘어간
작들을 비행대의 지원밑에

소멸하기 위한 협동작파 전투행동방법을
숙련함으로써 작전전투계획의 현실성을
확정하고 짜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시소에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
사단 1땅크장갑보병련대장의 결심보고
를 청취하시고 연습을 개시하는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연습에서 적정은 이미 차지하고 있던
전투지대를 빼앗긴 적들이 강안계선에서
굽히 방어로 이전하여 공세적인 행동으로
아군부대들의 공격을 좌절시키려고 기도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공병정찰이 진행되고 번개같이 얼음도하
한 전투원들은 강대안의 지폐적고지를
불의에 기습침행한 다음 종심으로 기동하
였으며 련대가 장비하고 있는 화력타격수단
들이 『적』의 거점들을 타격하였다.

이어 련대의 화력지원호출을 받은 무장
직승기들이 목표상공에 렌이어 날아와
무자비한 공습을 벌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적의
머리우에 명중탄불소나기를 피벗하는 무장
직승기들의 공습전투행동을 만족하게 바라
보시며 높이 평가하시였다.

땅크장갑수하장과 장갑차수상도하장, 둘
다리도하장의 얼음을 날려버리는 요란한

폭음소리가 천지를 진갈하였으며 얼어붙은
강줄기를 통강내며 장벽같은 얼음기둥이
하늘을 치받으며 물속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진
보장구분대 군인들이 자기들이 맡은 임무

를 원만히 수행한다고, 잘한다고, 실지
전투를 보는것만 같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도하장은 물도 가니마냥 끓어번지었으며
잠수도 하, 수상도 하, 둘다리도 하로 강을
넘어선 땅크, 장갑차들이 질풍같은 공격으
로 『적』의 방어선을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드려면서 도주하는 적들을 멎拜师学

추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주먹이 제일 세기로 소문난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 확실히
다르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하천
과 철준한 산발들이 요새처럼 둘러싸여있
으며 작전전투행동에 미치는 계절적영향이

각이한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기상기후
적특성에 맞게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 오
늘과 같은 실전화된 강도높은 훈련들을 계
절별로, 주야일기에 관계없이 더 많이 조직
진행하여 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고 풍
부한 전투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인민

군대안의 모든 땅크, 장갑무력을 그 어떤
장과 잇달아있으며 총대를 강화하는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사회주의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당의 훈련
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치게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연습참가자들은
풀소 훈련을 지도해주시며 백전백승의
방략을 훤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훈련장에 충청의 구슬땀을 아낌
없이 바침으로써 뜻깊은 2017년을 훈련
혁명의 해, 짜움준비 완성의 해로 빛내일
불리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광양】 1월 27일 밤 조선중앙통신】 지역 자강의 송전 포성으로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비악, 대혁신을 창조해가는 위대한 동당시대의 악동하는 기상이 려명거리 건설장에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리마속도 창조대전으로 들끓고 있는 려명거리 건설장을 염지지도하시고 려명거리 건설을 향양철전으로 기어이 끌냄으로써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날길없이 시위함에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었다.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한 전체 인민군인들과 둘격대원들은 최후불굴전에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미지막결승주로를 힘차게 달렸으므로 써 인민을 위해 일사百무하는 것을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결심은 푸른 현실이고 실천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려명거리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국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자

군민궐기모임진행

파시네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달고 태양철전으로 려명거리건설을 투조건 끌내기 위한 군민궐기 모임이 27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당, 무력 기관 군관들, 전설에 참가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군인건설자들, 둘격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보고를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새해 정초부터 조국과 인민을



위해 놀보라강 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려명거리건설을 찾으시며 공사에 참가한 전체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밀을 끌어오르고 고무적힘을 안겨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건설장을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봄과 1년도 양되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의 용장한 자태를 엿볼하게 드리었고, 려명거리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신뢰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있다니 만족을 표시하시며 려명거리건설을 태양철전으로 투조건 완공하고자 열렬히 호소하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화같은 애국의 헌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생 105돐을 맞으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세상에 부립없어라》 노래소리가 려명거리에서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대국민과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주동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앞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달고 당의 대건설구상을 불같은 신신과 완강한 실천으로 끊지지 않고 헌신하여 창조되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길을 따라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 적극집이며 투쟁기입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려명거리건설은 단순히 거리형성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새 국주의의 대결전이며 사회주의 수호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완공의 날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 투쟁 또 투쟁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역사적인 70일전투와 200일전투를 자랑하는 승리로 결속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공사장전역에서 새로운 기적창조의 거리의 용장한 자태를 엿볼게요. 려명거리 투쟁에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기 손으로 조국의 새무를 늘인다는 자작, 후대들에게 배움, 만족과의 전통을 냉겨주겠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모든 대상들을 당의 독창적인 주체적건축미학 사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힘으로 투쟁하고자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열화같은 애국의 헌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생 105돐을 맞으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세상에 부립없어라》 노래소리가 려명거리에서 높이 울려퍼지게 하려는 우리 대국민과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주동하고 있다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앞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달고 당의 대건설구상을 불같은 신신과 완강한 실천으로 끊지지 않고 헌신하여 창조되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루어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길을 따라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 적극집이며 투쟁기입니다.》

총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김정은동지께서는, 서길복 대외경제성 부상, 려일전 수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강원도정신, 자력 자강의 위력을 발휘하여 당시 제시한 전투적 파업을 결사관철해 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이 공사를 당시 정예준 기간에 무조건 완공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의 앞장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일당혁명장군의 전투적과 위용을 떨쳐나갈게 대하

여 그들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통의 외벽 마감공사와 록지조성을 비롯하여 모든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여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창조해나가는 인민군대의 기질과 본마음을 다시 한번 힘있게 보여줄것

이라고 말하였다.

이미 거둔 성과에 조금도 자만함이 없이 큰 편속공격작전을 벌릴수 있도록 통계획을 면밀히 세운데 기초하여 전투조직과 지휘, 토련과 설비, 자제보장사업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설대 상황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공법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공사를 최대한 그치지 말아 전투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전기, 난방, 금속수제용품을 확장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기, 난방, 금속수제용품을 확장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지원활동과 일군들이 원동력으로 향한 미지막결승주로의 빠른 철거와 대중을 이끌어 나가며 화선식정지사업을 확장해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지원활동과 일군들이 원동

강원도정신의 기본요구

우리 당은 지역자강의 위대한 통역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핵사격투쟁으로 내세우고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따파애울것을 호소하였다.

강원도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원국민원을 반드시 풀어드려겠다는는 충정의 마음, 모진 시련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사생결단의 각오와 대절불굴의 의지로 헌신하는 사람과 수령에 대한 헌신과 당정체를 투조건 풀까지 판결하는 것이다.

혁명은 수령의 위업이고 인민의 의지이다. 수령의 사랑과 업적을 응호하고 수령의 유훈과 당정체를 전사관철하는 투쟁속에서 혁명이 진전하고 혁명의 헌신과 당정체를 투조건 풀까지 판결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를 헌지지하하시면서 강원도민들은 철저히 헌지지하하는 것이다. 강원도민들은 어려워도 하여 우를 헤쳐나가고 하여 우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기적은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라 자강력이 암아오는 필연이다. 재힘이 제일이고 자력경쟁이 제일이다.

강원도민들은 어려워도 하여 우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강원도민들은 철저히 헌지지하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를 헌지지하하면서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또한 자강력제일주의기치 높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

기적은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라 자강력이 암아오는 필연이다. 재힘이 제일이고 자력경쟁이 제일이다.

강원도민들은 어려워도 하여 우를 헤쳐나가는 것이다. 강원도민들은 철저히 헌지지하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우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를 생명선으로 풀어주고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길을 풀고 헌신하는 사람과 수령에 대한 헌신과 당정체를 풀까지 판결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의 유훈, 당의 묘선과 정체가 및나는 현실로 물려져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나약한 인민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행세를 풀까지 지켜가려는 강원도민들의

로자들의 심장속에서 세차게 맷동칠 때 수령

